

신임회장에 閔壽泓교수
한국기술사회

韓國技術士會(회장 閔壽泓)는 3월25일 대한건축사회관에서 제2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백70여명이 참가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15대 회장단으로 새회장에 閔壽泓교수(인하대), 부회장에 成樂正회장(과충), 李康鎬회장(고려에너지(주)), 權五錫회장((사)건설안전기술협회)이 선출되어 2년간의 임기에 들어갔다.

또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姜泰旭씨(한진개발공사 상임고문)를 비롯 宋錫禹씨(원천산업 고문) 등 4명에게 기술상이, 黃濶浩씨((주)가람건설콘설탄트 대표이사)에게 장려상이 수여됐으며, 金圭泰전회장 등 10명에게 특별공로패가, 鄭虎溶사무국장 등 사무처직원에게 장기간속표창패가 주어졌다.

매월2회 정기세미나
한국기계연구원

韓國機械研究院(원장 徐相箕)은 3월 9,23일 4월 6, 20일에 창원에 소재한 동연구소 본관 세미나실에서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신기술보급을 위해 매월 2회 실시되고 있는 이 정기세미나는 3월9일에 김호철교수(한국과학기술원)가 「복합재료의 동적기계적 특성과



판파의 전파」를, 23일에는 李在英교수(한국과학기술원)가 「금속 수소화물 전지의 최근 개발동향」, 4월6일에는 정정운씨(한국중공업(주) 상무)가 「기술자립 추진전략」 그리고 20일에는최대현씨(부산창업투자(주)사장)가 「한국 벤처캐피탈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강연이 있었다.

사료 가공 단과과정 실시
한국영양사료학회

韓國營養飼料學會(회장 孟元在)는 4월6일에서 10일까지 5일간 한국공업표준협회에서 제5회 사료가공 단과과정을 실시했다.

캐나다, 일본, 중국, 스위스 등 국외강사를 초빙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1백62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야노교수(일본 교토대학)의 「일본 사료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비롯 河鍾圭교수(서울대)의 「반추위 곰팡이의 특성과 효소의 역할」 및 유춘첸박사(중국 농업과학원)의 「중국 사료산업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라벨트교수(캐나다 스카치완대학)의 「가축의 성장과 번식조절을 위한 면역학적 접근」 등 28편의 강연이 있었다.

8대회장에 鄭亨植교수
한국지반공학회

韓國地盤工學會(회장 鄭亨植)는 지난 3월27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강당에서 제9회 정기총회 및 봄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2월12일 정기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차기회장단에 대한 인준과 금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승인이 있었는데 제8대 회장에 鄭亨植교수(한양대)가 취임했으며 부회장 3명 가운데 1년간의 임기가 남은 洪性穆교수(서울대)외에 姜秉熙교수(인하대)와 梁鉉承대표이사 ((주)우대기술단)가 새로 선임되어 2년간의 임기에 들어갔다.

한편 2백80여명이 참가한 봄학술발표회는 「지반공학과 터널기술」을 주제로 열려 李寅模교수(고려대)의 3명의 「터널설계시 지하수의 고려 방안」을 비롯 白榮植교수(경희대)의 2명의 「산악지 쌍굴 수로터널 해석에 대한 고찰」 그리고 金鏞一씨(대우연구소)의 3명의 「도시 NATM터널에서 변위 예측기술의 적용사례연구」 등 9편의 논문 발표와 종합토론이 있었다.

「침엽수이용…」세미나
한국목재공학회

韓國木材工學會(회장 吳正壽)는 3월17~18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침엽수의 이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엽수를 이용한 합판의 제조 및 이용」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합판공업협회(회장 朴英殊)와 공동으로 뉴질랜드산 소나무 전문가와 세계 유수의 침엽수 가공기계 제조업체전문가를 초청하여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을 비롯한 뉴질랜드, 핀란드,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 6개국이 참여했다.

임산관련관계자 2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합판용 재료로서의 침엽수이용이란 주제로 행크 비어박사(뉴질랜드 임업연구소)의 「침엽수 합판의 이용」, 티모 레이니카이넨씨(핀란드 라우테(주))의 「침엽수 가공기술개발」 및 유젠 소메르박사(독일 밥콕(주))의 「건조기계 개발」 그리고 林鍾潤씨(산림청 영림국장)의 「한국의 산림자원과 목재수급 계획」 등 19편의 발표가 있었다.

정기총회열고 학술발표
한국열처리공학회

韓國熱處理工學會(회장 金文一)는 4월10일 고려대

학교 과학도서관에서 제5차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80여명이 참가한 이날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는 鄭인교수(울산대)의 「금속분말제조와 분무성형」과 成章鉉교수(동아대)의 「철분말의 금속사출성형」에 관한 특별강연과 金聖浣박사(생산기술연구원)의 「아크이온 플레이팅법 기술현황」에 관한 기술보고가 있었다.

또한 일반논문발표로는 金文一교수(연세대)의 2명의 「플라스마 화학증착된 TIC, TIN 및 TIC/TIN 박막의 밀착 특성 비교」를 비롯 權肅仁교수(고려대)의 1명의 「기계적 합금화로 제조된 분말의 열처리에 따른 금속간 화합물의 형성」 등 6편이 발표되었다.

한편 정기총회에서는 閔滿基교수(고려대 산업대학원장)에게 이번 학술발표대회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총회서 日교수 특강

한국섬유공학회

韓國纖維工學會(회장 馬錫一)는 4월 9~10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제30기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첫날 열린 정기총회 시상식에서는 高錫元전임회장에 게 재임기간동안 학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을

수여한 것을 비롯하여 학회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학술상을 姜泰晋교수(서울대), 기술상을 金光泰씨(제일합섬기술(연) 소장), 李東伯씨(태광산업 공장장), 李殷廣씨(삼양사 공장장)가 각각 수상했으며, 李在坤교수(서울대)와 柳濟春씨(삼양사 부사장), 廉三周씨(신한건설 대표이사), 李榮雨씨(한국화학협회 기획부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한편 2백10여명이 참가한 춘계학술발표회에서는 이사오 모치다교수(일본 큐슈대학)의 「액정 Pitch로부터 탄소섬유제조 전망」에 관한 특별강연과 金承辰교수(부산대)의 4명의 「섬유의 점탄성 특성과 직물의 구김미케니즘 연구」를 비롯 李春吉교수(경북산업대)의 2명의 「코운 드럼 트위스터 기구에 관한 연구」 그리고 梁甲承교수(전남대)의 3명의 「열경화성 부어를 위한 나프탈렌 메조페이스 핏치의 화학적 개질」 등 5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새로운부품부문 학술강연

한국자동차공학회

韓國自動車工學會(회장 金應瑞)는 4월16일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재료, 부품부문 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1백여명이 참가한 이날 학술강연회에서는 吳博均박사

(한국자동차종합부품(연))의 2명의 「자동차용 기계구동과급기의 기술동향」을 비롯 李大吉교수(한국과학기술원)의 1명의 「복합재료 자동차부품의 개발현황과 제조방법」 그리고 李用成교수(단국대)의 3명의 「SM 45C의 화학성분이 피삭성에 미치는 영향」 등 14편의 강연이 있었다.

새원장에 金殷泳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3월29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徐廷旭원장 후임으로 金殷泳박사(57)를 새 원장에 선임했다.

신임 金殷泳원장은 서울대 및 동 대학원(화학공학 전공) 졸업한 후 독일 다름슈타트공대에서 고분자공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67년 KIST 창설멤버로 입소한 후 고분자연구부장, 화학공학부장, 연구조정부장 등을 거쳐 89년 6월 KAIST와 분리된 이후 92년 8월까지 3년여동안 부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KIST는 신·구원장에 대한 이·취임식을 3월30일 동 연구원 존슨강당에서 가졌다.

이날 金신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의 연구소 운영방침을 △미래지향적 선도기술중심의 위상 재정립 △연구활동에 대한 안정

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연구의 전문성 축적 △연구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연구활동에 제약요인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 및 제도개선 △새로운 연구분야 전개 등에 두고 KIST를 신명나는 연구소로 바꾸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31일에는 동 연구원 한·소과학기술협력센터장인 丁炯燦박사가 부원장에 임명됐다.

「생물다양성」 심포지엄

한국곤충연구소

고려대학교 부설 韓國昆蟲研究所(소장 金學烈)는 4월1일 동 대학교 과학도서관 대강당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과학적인 실상의 파악과 대책제시와 다양한 국제정보를 얻고자 마련된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미국, 영국 등 6개국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9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또한 이어서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지금은 국가적인 생물다양성 보전전략이 필요한 시기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생물다양성이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으로 잔존자

연자원의 고갈과 환경악화를 초래해 대량멸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에서는 포괄적인 생물다양성 보존계획이 즉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장 기초적인 생물다양성 목록작성을 위해 국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작성된 목록과 표본으로 국립생물다양성표본센터를 설립하고 정보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생물다양성 보존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총회서 논문3편 발표

한국고무학회

韓國고무學會(회장 白奉基)는 4월9일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춘계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70여명이 참가한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C.B.Keach 박사(미국 Witco사)의 「세계의 카본블랙 사용 동향」에 관한 특별강연과 연구발표로 朴德濟씨(부산대)의 2명의 「EPDM을 포함하는 삼원 공중합체의 합성과 물성」을 비롯 朴健綠씨(청주대)의 2명의 「반응성 가소제 효과에 관한 연구」 등 3편이 발표됐다.

또한 이어 열린 춘계정기총회의 시상식에서는 제18회 우수모토상을 宋容徹씨(한국신발(연))를 비롯 金楨洙교수(충북대), 申宰燮교수

(충북대), 康錫鎬씨(충북대)가 수상했으며, 崔景滿씨(경희대)와 吳周植씨(성균관대) 등 4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찬조회원사인 (주)금호를 비롯한 8개회사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북방정보개발단」 설치

산업기술정보원

産業技術情報院(원장 朴弘植)은 지난 3월15일부터 「북방정보개발단」을 설치,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북방정보개발단」은 북방 투자환경정보·기술이전정보 등 북방지역 산업정보의 조사·분석·연구는 물론 국내산업계의 보급업무를 체계화하여, 국내 북방정보 종합유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북방지역관련 산업·기술정보의 체계적 제공 구축은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운영의 효율화는 물론 북방지역과의 사업협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학술상에 趙元濟교수

한국고분자학회

韓國高分子學會(회장 金殷泳)는 4월9~10일 양일간 연세대학교에서 춘계학술대회 및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의 학회상 시상식에서는 학술상을 趙元濟교수(부산대)가, 기술상을 崔珍石씨(동성화학공업(주)

전무)가 수상했으며 尹熙重 사장(삼화페인트공업(주))를 비롯 金哲鍾사장(세한실업(주)) 등 5개회사 대표들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한편 4백90여명이 참가한 학술대회에서는 초청특강으로 마이어박사(미국, 미시건 분자연구소)의 「고분자블렌드와 엘로이계에 있어서 상용화제의 역할에 관한 연구」 등 3편과 일반특강으로 이강욱박사(미국 IBM)의 「표면고분자화학의 Microelectronics분야에의 응용」 등 16편, 그리고 연구논문으로 盧時台교수(한양대)의 「아크리/디엔 공중합체의 제조와 이를 함유한 PMMA수지의 물성」 등 1백53편, 산학연 심포지엄으로 李海邦박사(한국화학연구소)의 「인솔린 팻취의 연구개발」 등 4편이 각각 발표되었다.

「과학의 달」 기념강연

대한전기학회

大韓電氣學會(회장 李東昊)는 4월23일 서울대학교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에서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의 달 기념강연회를 개최했다.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는 高明三교수(서울대)의 「생산시스템의 자동화 기술동향」을 비롯 朴祥基원장(한전기술연구원)의 「765KV송전전압격상 사업추진과 연구개발」 및 盧在植원장(한국환경기술개발원)의 「에너지와 환경」 등 3편의 강연이 있었다.

발원)의 「에너지와 환경」 등 3편의 강연이 있었다.

「약물수송기법」 토론

한국약제학회

韓國藥劑學會(회장 李致浩)는 4월30일 제약회관에서 「최근의 약물수송기법」이란 주제로 과학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50여명이 참가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宋泳俊박사(〈주〉종근당)의 「약물수송체로서의 프로드럭」을 비롯 李用福교수(전남대)의 「경구항암제인 Tegafur의 입과수송」 및 이재관교수(중앙대)의 「간세포배양을 이용한 약물수송 및 대사」 등 8편이 발표되었다.

「체신의 날」 학술강연

한국통신학회

韓國通信學會(회장 金在均)는 4월23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체신의 날 기념학술강연대회를 개최했다.

「정보통신문명과 문화」란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강연회에는 2백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洪性遠박사(한국과학기술원)의 「우정사업의 장기 발전방향과 지역정보화 추진에서의 우체국의 역할」을 비롯 金孝錫교수(중앙대)의 「정보통신문명과 국가경쟁력」 그리고 姜仁載교수(전북대)의 「정보통신 연구에 있어서의 산학협동」 등 5편의 강연이 있었다.